

건축 요소를 활용한 장식구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예학과

이효원

2015

순서

머리글

- 1.연구배경
- 2.연구목적

몸글

- 1.연구방법
 - 1) 각접기(Scoring)
 - 2) 부식(Etching)
 - 3) 디지털프린팅(Digital-Printing)
- 2.참고작가
 - 1) 루이스 칸(Louis Kahn)
 - 2) 칸디다 회퍼 (Candida Höfer)
- 3.연구작품
 - 1) 드로잉
 - 2) 제작과정
 - 3) 연구작업
 - 작품 1 : absence 1
 - 작품 2 : absence 2

맺음글

참고자료

머리글

1.연구배경

현대사회에 있어서 건축은 생산적인 활동 및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구조 요소들은 안정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바탕으로 양식화되어졌으며, 자연환경과 중력 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건축양식을 바탕으로 각국의 세계적인 건축물들은 외형적인 미적요소와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시대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1)

2.연구목적

현대의 건축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흐름 속에 해마다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무분별한 건물의 구축과 의미 없는 공간의 구성, 경제적 추구성을 위한 건물의 개발 등에 의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구축되어진 건물이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얘기한 건축의 특성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활용한 장신구의 가능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1) 건축 구조를 활용한 장신구 연구_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김현수

2) 건축 구조를 활용한 장신구 연구_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김현수

몸글

1.연구방법

1) 각접기(Scoring)

금속판의 평면성을 거의 유지한 형태를 조합해가면서 입체를 성형하는 방법이다. 접기 기법은 단금 기법의 성형원리를 기초로 연구된 금속 성형 기법으로 각접기를 포함하여 곡선 접기로 응용된 성형기법이다. 즉, 금속판에 직선, 곡선, 자유곡선의 홈을 파내고 이 홈 파인 곳을 접어서 일정한 각도로 금속을 접는 기술로서 접은 부분에 정확하고 예리한 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조형표현에 있어서 유기적인 곡선과 곡면의 성형이 용이한 기법으로 각으로 된 양감을 통해 풍부한 조형미를 얻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금속면을 망치질하여 늘리는 기법이 아니므로 재단 상태에서 치수를 측정할 때 충분한 모형제작을 거쳐 원하는 형태의 크기를 정확히 감안하여 재단해야 한다는 것이다.³⁾



그림 1) 각접기 예시

2) 부식(Etching)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유래한 말로 'Etch'에서 유래되었으며, '파고들다' 또는 '파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부식(etching)은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응용한 소형(塑型)이나 표면가공의 방법이다.⁴⁾ 흔히 식각(蝕刻)이라고도 한다. 사용하는 소재에서 필요한 부위만 방식(防蝕)처리를 한 후 부식시켜서 불필요

3) 종이접기 방식을 활용한 금속공예 연구_국민대학교 대학원, 2003, 김지현

4) 도시공간 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신구 조형 연구-금속부식기법을 응용한 작품 연구-_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12, 김성은

한 부분을 제거하여 원하는 모양을 얻는다. 동판에 의한 판화, 인쇄기술로 발전해온 역사가 길기 때문에 구리나 아연 같은 금속가공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지만, 부식성만 있다면 다양한 소재의 소형, 표면가공에 응용이 가능하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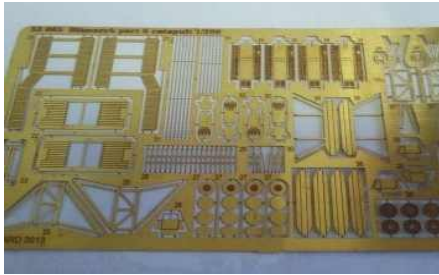


그림 2) 양면 부식



그림 3) 스테인리스 부식

3) 디지털프린팅(Digital-Printing)

디지털 프린팅 기법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변형 또는 생성한 이미지나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금속이나 섬유, 유리, 플라스틱 등의 여러 매체 위에 전사하는 기법을 말한다. 디지털 입력기기인 컴퓨터를 매개체로 하여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프린팅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색과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⁶⁾

2.참고작가

1) 루이스 칸(Louis Kahn)



그림 4) 루이스 칸



그림 5) 샌디에고의 소크연구소 (1963)

5) 에칭[Etching], wikipedia

6) 회화적 표현을 응용한 현대 장신구 연구-알루미늄 디지털 프린팅과 꼴라주의 혼합기법을 중심으로_홍익대학교 대학원 금속조형디자인과, 2011, 이경진

루이스 칸은 모더니즘과 국제주의 양식으로 치닫고 있던 20세기 후반에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세계를 구축한 건축가다. 그의 건축은 '침묵과 빛 사이'라는 말로 집약되어 표현될 수 있다. 칸의 건축적 특징은 그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관상으로 보아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구조주의'적인 면이다. 철학에서는 '구조주의'가 개념의 정의를 위해서 상반된 것들을 병치시키는 사조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관상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건축경향을 지칭하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건축물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조체와 비구조체로 나뉘어진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경우 하중을 받는 벽 혹은 기둥은 구조체고, 대부분의 오피스에서 방과 방 사이를 구획하는 가벽처럼 없어져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벽들은 비구조체다. 칸은 건축물의 재료를 선택할 때 구조체는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비구조체는 벽돌이나 나무 등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이 서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7)

2) 칸디다 회퍼 (Candida Höfer)



그림 6) 칸디다 회퍼



그림 7) BIBLIOTECA ANGELICA ROMA

회퍼는 공적인 장소, 그것도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사진에 담아 왔다. 세계 곳곳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오페라 극장, 궁전, 대성당, 은행 등이 그가 다루는 주제이다. 그는 건축 공간 자체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공간과 인간의 유기적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서 인물을 철저히 배제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이유로 그의 사진은 '부재의 건축 Architecture of Absenc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거주하며 활동하는 공간을 재현한 사진에서 마

7) 현대건축의 흐름 텍스트, 유현준

땅히 존재해야 할 인물을 배제시킨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존재를 더욱 강하게 환기시킨다. 그는 인위적인 설정이나 카메라 조작을 가능한 자제함으로써 공간과 사물의 형태들이 스스로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광각 렌즈를 사용하여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화면 속에 담고, 정면 구도나 대각선 구도를 취함으로써 우리에게 개방된 공간, 열린 공공장소의 느낌을 전달한다. 더불어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시간의 연속성과 그곳에서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한 인간의 영욕을 되새기게 한다. 비록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사체를 향하고 있지만 그의 사진은 시간의 궤적 속에 우뚝 선 공간과 그 공간에서 삶을 영위한 인간의 흔적들을 생생하게 상기시킨다. 8)

3.연구작품

1)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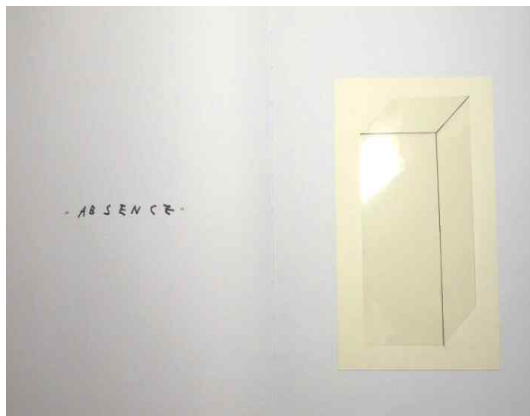


그림 8) 드로잉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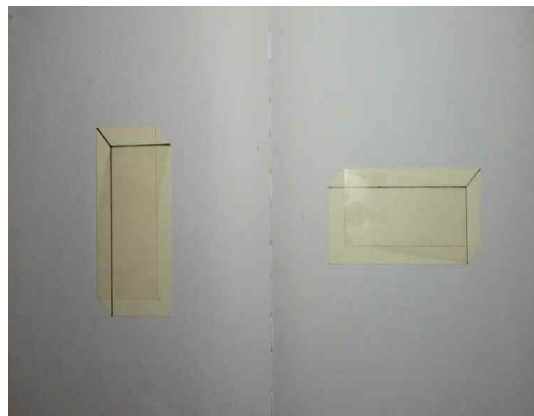


그림 9) 드로잉 2, 3

참고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떠오른 생각을 드로잉하였다. 직육면체 모양의 도화지 위에 얇은 필름지를 덧대어 그 위를 지나가는 직선들을 그려내었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공간성'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2)제작과정

드로잉에서 영감을 얻어 나무, 필름지 등 타재료를 이용해 실제 사이즈로 모델링을 제작하였다. 그 후 건축물의 공간성과 안이 비어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안쪽에 의자를 배치하여 '부재'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8) 칸디다 회퍼 [Candida Höfer], 두산백과

3)연구작업



작품 1) Absence 1



작품 2) Absence 2

건축물의 공간성과 안이 비어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안쪽에 의자를 배치하여 '부재'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외관상으로 보아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건축의 구조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각봉을 사용하여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맺음글

참고자료

건축 구조를 활용한 장신구 연구_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김현수
종이접기 방식을 활용한 금속공예 연구_국민대학교 대학원, 2003, 김지현
도시공간 이미지를 형상화한 장신구 조형 연구-금속부식기법을 응용한 작품
연구-_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12, 김성은
회화적 표현을 응용한 현대 장신구 연구-알루미늄 디지털 프린팅과 플라즈마의
혼합기법을 중심으로_홍익대학교 대학원 금속조형디자인과, 2011, 이경진
현대건축의 흐름 텍스트, 유현준
칸디다 회퍼 [Candida Höfer], 두산백과
에칭[Etching], wikipedia